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과 선호도*

Color Sensibility and Preference of the Black Color Fabrics

김여원** · 최종명**†

Yeowon Kim** · Jongmyoung Choi**†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evaluate the color sensibility and preference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actile preferences and purchasing preference on structural properties, color characteristics and color sensibility for the black color fabrics.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color sensibility, tactile preference and purchasing preference to the nine different black fabrics which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mean, factor analysis, t-test, Kruskal-Wallis 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color sensibility for black color fabrics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simplicity/classic, elegance, modernity and dignity. This color sensibility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ve relationship to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black color fabrics. On the other hand, fabrics which were evaluated with good tactile preference among the black color fabrics tended to show higher purchasing preference. Also, among the color sensibility,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black color fabrics, major variable factor of influencing on the tactile preference and the purchasing preference was turned out to be the color sensibility.

Keywords : color sensibility, color characteristics, tactile preference, purchasing preference, black color fabrics

요약

본 연구는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색채감성과 선호도를 조사하고, 소재의 구조적 특성, 색채특성 및 색채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선정된 9종의 블랙 패션소재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색채감성과 촉감 및 구매선호도를 평가시켰다. 평가된 자료는 빈도분석, 평균, 요인분석, t-test, Kruskal-Wallis검정,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블랙컬러소재의 색채감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등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색채감성 요인은 소재의 종류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검정 벨벳소재는 이들 색채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소재로 평가되었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블랙소재가 더 심플/클래식하고 우아하며 현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들 색채감성 요인은 소재의 구조적 특성 및 색채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블랙컬러 패션소재 중에서 촉감이 좋다고 평가된 소재의 경우 구매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촉감과 구매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변인은 색채감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랙컬러 패션소재는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등의 색채감성을 나타내었고, 색채감성은 선호도에 영향

*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최종명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E-mail : jmchoi@chungbuk.ac.kr

TEL : 043-261-2791

FAX : 043-274-2792

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상품기획시 추구 이미지에 따라 블랙컬러소재를 차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색채감성, 색채특성, 촉감선호도, 구매선호도, 블랙컬러소재, 대학생

1. 서론

현대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더욱 차별화, 다양화되고 있는데, 패션상품은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즉 패션상품은 실루엣이나 디자인 이외에도 소재의 컬러나 촉감과 같은 심미적인 요소와 감성적 특성에 의해서 제품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컬러는 인체 오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컬러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있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3). 따라서 컬러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의복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감성을 자극한다. 또한 시대와 국가, 민족, 성별, 나이, 개인의 성격, 직업 등에 따라 컬러에 대한 연상과 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선호하는 컬러도 다양하다.

블랙컬러는 고대부터 죽음, 반항,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컬러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남자와 여자의 10%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며 젊은 계층일수록 블랙을 선호하는 등(헬러, 2002), 블랙에 대한 연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오수현, 2004). 즉 블랙컬러는 20~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복컬러(29.9%)이면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의복컬러(34.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윤, 2003). 또한 블랙컬러는 컬러의 단순함으로 인해 다른 색과의 배색에도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의 형태와 선을 돋보이게 하는 특성이 있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보듯이 블랙컬러는 유채색의 면 분할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강조 색으로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한편, 블랙컬러는 산업혁명 이후의 모든 디자인 분야에 기본적인 색상으로 정착하였으며(송금옥, 2000), 실제로 블랙컬러 패션은 현대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패션브랜드에서 블랙컬러를 기본컬러로 산정해 놓고 패션상품기획을 하며,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블랙컬러의 옷은 소비자의 옷장에서 기본

아이템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신은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상품에서 기본컬러로 사용되고 있는 블랙컬러소재에 대한 색채감성 자료를 조사하여 패션소재기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곽혜선, 금기숙, 1998; 김기례, 채금석, 2004)에서 분류한 블랙컬러 패션소재를 대상으로 색채감성과 선호도를 조사하고 색채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색채감성과 선호도와 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블랙소재와 색채감성

블랙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색채로 복식에서 수 많은 상징성을 가진다(김기례 등, 2004). 즉 블랙은 일반적으로 허무, 절망, 질병, 죽음, 암흑, 밤, 애도, 슬픔, 정지, 부정, 파괴, 최악, 금욕, 수치, 불결, 배반, 저주, 불안, 공포, 불행, 불길함, 음울, 억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블랙이라는 색에서 느껴지는 의미는 부정적이지만 패션에서는 여러 가지 독특한 이미지들을 형성하면서 블랙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기산업사회의 청교도적 도덕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균일성, 바우하우스에 의한 색의 제한 등을 배경으로 20세기에는 현대의 색으로 인식되어 기능성과 현대성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패션에서의 블랙컬러는 르네상스시대 이전에는 주술적, 종교적, 경제적 제한성 등으로 나타났고, 16세기에는 스페인의 영향으로 귀족들에게 유행되면서 엄격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사회로 되면서 남성복의 주된 색상이 되었고, 여성복에서는 샤넬의 리틀 블랙드레스가 등장하면서 현대성을 상징하면서 블랙컬러는 패션성을 가지는 색채로 변화하였다(곽혜선 등, 1998). 미국의 경우 이미지가 크게 변한 컬러가 블랙컬러인데, 원래 ‘유럽에서 이민 온 여성이 입는 촌스러운 컬러’란 이미지이었다가 모델들이 블랙컬러를 입고 사교계에 등장하면서 대담하고 도시적이며 세련된 색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쿠퍼와 매튜, 2002). 이처럼 한 문화권에서 공통된 색채감정이 표현되는 경

우도 있지만, 개인의 나이, 성별, 성격, 민족성 등에 따라 색채에 대한 연상과 개념이 다를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도 색채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유명희, 2009). 또한 어떠한 색채가 의복에 사용되었을 때 본래의 색채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복에서만 강조되는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색채가 갖는 이미지가 반드시 의복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없다(이희재, 2006). 이러한 색채 이미지의 변화는 동일한 색채라고 해도 표현되는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색채감성은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블랙컬러는 다른 유채색과는 달리 모든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는 컬러이어서 소재의 특성은 블랙컬러 소재의 색채감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블랙컬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명희(1997)는 블랙의 이미지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서구문화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색상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20세기 들어서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죽음이나 상복을 표현하는 슬픔의 의미보다는 분노, 공격, 반항을 나타내는 색채가 되었다고 하였다. 문혜정과 김민자(1998)는 복식에서의 블랙은 비애성과 금욕성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등의 미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임정순(1999)은 복식에서 블랙은 위엄이나 권위와 엄격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절제성과 우아함의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윤지윤과 김영인(2005)은 블랙의 이미지를 엄숙한/엄격한, 모던한, 악마적/불길한, 죽음의, 고독한/반항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제기연과 이경희(2009)는 블랙컬러의 패션이미지를 섹시페미닌, 모던쉬크, 모던퓨처, 젠더리스, 아방가르드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정미와 조진숙(2006)은 블랙의상의 독특한 미적특성으로 위엄성, 여성성, 모던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선영(2007)은 리틀 블랙드레스를 통해 20세기 전반에는 여성성과 현대성을 표현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블랙컬러는 미니멀, 아방가르드, 클래식, 개성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의미와 변화를 나타내었고, 2000년 이후에 블랙컬러는 현대성, 관능성, 여성성, 혼성성의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한편, 곽혜선 등(1998)은 블랙컬러가 의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면서 현대 패션에서 많은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즉 블랙 광택소재로는 벨벳, 새틴,

태피터, 가죽, 비닐, 비치는 소재로는 레이스, 오건디, 시폰, 밋밋한 소재로는 모직물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블랙소재의 의상은 죽음, 엄격함, 간소함, 현대성, 저항성 등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례 등(2004)의 연구에서도 블랙드레스에 사용된 소재의 종류에 따라 이미지는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즉 모직물, 크레이프, 조젯, 저지와 같은 무광택 블랙소재는 여성적인 품위와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고, 레이스, 오간자, 보일, 시폰, 비닐과 같은 투명블랙 소재를 사용하여 리본이나 주름과 같은 디테일을 표현할 경우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신체가 드러나거나 밀착되는 형태에 사용될 경우 관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광택소재는 빛에 의한 효과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벨벳과 새틴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가죽과 비닐은 관능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인간의 색채감성은 일차적으로 감각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지만 감성은 사회, 문화, 환경 맥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다(황상민, 권보미, 2005). 색채감성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특정색채에 대한 선호도, 색채에 대한 감각이미지 평가 및 색채감각이미지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감성요인을 추출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나뉘어서 진행되어 왔다(이은주, 최종명, 2009). Osgood 등(1957)은 색채감성은 평가성, 활동성, 잠재성 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Wright와 Rainwater(1962)는 행복감, 현시성, 우아함을 포함하는 6개 색채요인을 추출하였고, Ou 등(2004)은 색채요인을 활동성, 무게, 열 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한편 Gao와 Xin(2006)은 '부드러운'과 '가벼운' 등의 색채감각은 주로 명도 등의 색채밝기와 관련된다고 밝혔으며, Ou 등(2004)은 색채감성요인으로 추출된 '무게감'은 색채 밝기 속성인 CIE L*에 의해 정량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색채감성은 색채특성 중에서도 빛과 관련있는 명도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고찰한 것처럼 블랙컬러에 대해서는 블랙 의상에 대한 이미지나 조형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문헌연구가 대부분이며, 색채감성에 대한 연구도 천연염색을 중심으로 황색이나 적색에 대한 색채감성을 규명한 연구(이은주 등, 2009; 최연주, 유효선, 권수애, 2005)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블랙컬러소재에 대한 색채감성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색채특성과 색채감성을 평가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자극물 선정

본 연구의 자극물은 패션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블랙컬러 소재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즉 서로 다른 질감에서 나타나는 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블랙소재를 광택소재(벨벳, 새틴, 가죽, 비닐 등), 비치는 소재(레이스, 오간자, 시폰 등), 밋밋한 소재(모직)로 분류한 연구(곽혜선 등, 1998)와 무광택 소재(모직물, 그레이프, 조젯, 저지 등), 투명소재(레이스, 오간자, 보일, 시폰 등), 광택소재(벨벳, 새틴, 태피터, 가죽 등)로 분류한 연구(김기례 등, 200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광택소재(모직물, 조젯, 저지), 투명소재(레이스, 오간자, 시폰), 광택소재(벨벳, 새틴, 인조가죽)로 분류하여 총 9종의 자극물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표 1).

표 1. 최종 선정된 블랙컬러 패션소재

구분	자극물		
무광택소재			
	멜턴	저지	조젯
	투명소재		
레이스		오간자	시폰
광택소재			
	벨벳	새틴	인조가죽

표 2.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구조적 특성

자극물	섬유 혼용률 (%) [*]	조직	밀도(5×5cm ²)		두께 (mm)	무게 (g/m ²)
			warp/course	weft/wale		
무광택소재	W/P/A/N=70/15/8/7	Twill	80	80	0.98	165
	P=100	Jersey	256	288	0.44	107
	P=100	Plain	288	208	0.25	45
투명소재	P/PU=95/5	Lace	-	-	0.41	44
	P=100	Plain	176	224	0.13	19
	P=100	Plain	224	160	0.20	36
광택소재	P=100	Pile	112	112	0.32	111
	P=100	Satin	144	224	0.16	46
	R/P=45/55	Non-fabric	-	-	0.79	179

* W=wool, P=polyester, A=acrylic, N=nylon, PU=polyurethane, R=rayon.

3.2. 소재의 구조적 특성

자극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섬유혼용률, 조직, 밀도, 두께, 무게를 측정하였다. 자극물의 구조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3. 소재의 색채특성

최종 선정된 자극물의 물리적인 색채특성은 Clolor Techno Systems(JP/JX-777)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색채특성 변인인 CIE L*, a*, b*, C*, h 값을 10°시야에서 D65광원으로 측정하였다(표 3).

3.4. 색채감성과 선호도 평가

3.4.1. 평가용어 선정과 설문지 구성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곽혜선 등, 1998; 김기례 등, 2004; 윤지윤 등, 2005; 이정미 등, 2006)에서 추출한 블랙컬러에 대한 용어와 IRI색채 연구소가 개발한 형용사 이미지

표 3. 자극물의 물리적인 색채특성

구 분		L*	a*	b*	C*	h
무광택 소재	맬턴	12.984	0.264	-0.926	0.963	285.890
	저지	15.131	1.400	-1.834	2.308	307.350
	조젯	24.081	0.519	-0.113	0.531	347.755
투명 소재	레이스	36.546	0.466	-0.293	0.551	327.834
	오간자	54.049	-0.387	0.013	0.388	178.069
	시폰	37.426	0.759	0.985	1.243	52.370
광택 소재	벨벳	1.111	0.091	-0.047	0.102	332.877
	새틴	16.078	0.946	0.031	0.947	1.856
	인조가죽	22.899	-0.003	-0.736	0.736	269.760

스케일에 나타난 형용사를 포함한 156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156개의 감성평가용어 중에서 남녀 대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블랙컬러에 대해 연상되는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빈도가 높은 26개의 색채감성평가용어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색채감성 평가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촉감과 구매선호도를 평가문항을 추가하였다. 색채감성과 선호도 평가 설문지는 7점의 의미분별 척도로 구성하였다.

3.4.2. 색채감성과 선호도 평가

블랙컬러 패션소재 9종의 자극물을 15×15cm의 크기로 잘라 면셀 색채계 N7의 회색 종이 위에 부착하여 제시하고 햇빛이 들지 않도록 차단한 후 형광등 아래에서 보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설문지에 제시된 용어 쌍(부드럽지 않다-부드럽다)에 대하여 왼쪽의 용어(매우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면 1점, 오른쪽 용어(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면 7점으로 코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평가자는 9종의 시료 중에서 평가자가 감각을 잃지 않고 한 session에 약 9개의 직물까지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Mahar 등, 1989)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블랙컬러임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감각평가를 위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6종의 시료를 125명(남학생 63명, 여학생 62명)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4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시료 1종 당 분석자료는 80-86개에 해당한다.

3.5. 자료 분석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패션소재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색채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색채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블랙컬러소재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을 구하였으며, 색채감성요인과 패션소재의 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패션소재의 구조적 특성 및 색채감성요인과 선호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

4.1.1. 색채감성 요인분석 결과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색채감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은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65.2%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차분하다, 안정되다, 단정하다 등 총 9개 색채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심플/클래식’감성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블랙컬러의 색채감성은 샤넬의 리틀 블랙드레스의 경우 패드가 아닌 클래식으로 자리잡았으며, 20세기 후반에는 리틀 블랙드레스가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에 개성 있는 디자

인으로 재해석되었다고 한 결과(김선영, 2007)와 부합된다. 이러한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심플/클래식 이미지는 24.3%를 설명하고 있어 다른 색채 감성에 비해 가장 중요시 되는 색채감성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 2는 색채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서 멋있다, 우아하다, 매력적이다, 기품있다 등과 같은 색채 감성 형용사로 구성되어 ‘우아함’이라고 명명하였다. 문혜정과 김민자(1998)은 우아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블랙컬러에 대해 미적인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블랙컬러를 우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무렵부터 블랙컬러에 부여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요인 3은 세련되다, 모던하다 등 4개 색채감성 형용사를 포함하여 ‘현대적’이라고 명명하였다. 블랙컬러는 현대패션에 있어 시크와 모던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현대색=검은색이라는 도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곽혜선 등, 1998)과 부합되는 감성이다. 요인 4는 어둡다, 진하다, 강하다 등의 색채감성 형용사로 구성되어 ‘위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블랙컬러가 가지는 무게감 있는 엄숙한 이미지와 남성다운 위엄이 있는 효과를 주는 색으로서의 이미지(데이비스, 1990)가 블랙컬러 색채감성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해 대학생들이 느끼는 색채감성요인은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블랙소재 색채감성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α)
심플 / 클래식	차분하다	0.749	4.86	24.3	0.9
	안정되다	0.734			
	단정하다	0.713			
	적잖다	0.707			
	지적이다	0.702			
	고상하다	0.643			
	정적이다	0.620			
	품위있다	0.577			
클래식하다	0.525				
우아함	멋있다	0.733	3.15	15.7	0.8
	우아하다	0.727			
	매력적이다	0.689			
	기품있다	0.649			
현대적	세련되다	0.732	2.59	12.9	0.7
	모던하다	0.694			
	고급스럽다	0.658			
	성숙하다	0.490			
위엄성	어둡다	0.809	2.43	12.1	0.7
	진하다	0.800			
	강하다	0.742			
계				65.2	

이러한 블랙컬러의 색채감성요인은 선행연구(문혜정 등, 1998; 김기례 등, 2004; 이정미 등, 2006)에서 언급한 블랙컬러에 대한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블랙컬러의 이미지는 엄숙한/엄격한, 모던한, 악마적/불길한, 고독한/반항적이었으며, 블랙패션에 대한 이미지는 세련된, 간결한, 남성적, 단순한, 기발한, 반항적이라고 한 연구결과(윤지윤 등, 2005)와는 일부 일치하였다. 즉 블랙이라는 색채에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감성은 일치하지만, 제시된 자극물의 형태에 따라 색채감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1.2. 소재와 성별 색채감성의 차이

표 5는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종류에 따라 색채감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블랙컬러 소재의 종류에 따라 색채감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심플/클래식한 감성의 블랙소재는 벨벳>저지=멜턴=새틴소재의 순이었으며, 우아한 감성 소재는 벨벳≥새틴≥저지=조젯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적 감성을 표현하는 소재는 벨벳≥새틴≥저지의 순이었고, 위엄성을 표현하는 소재는 벨벳=멜턴=인조가죽=새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벨벳은 블랙컬러가 가지는 색채감성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특히 블랙 벨벳소재에서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등의 다양한 색채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을 표적 소비자 집단으로 패션상품기획을 할 경우 벨벳소재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다양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현대적인 컨셉의 패션상품기획시 블랙 새틴소재를, 위엄있는 색채감성이 요구되는 패션아이템을 기획할 경우 벨벳, 멜턴, 인조가죽, 새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블랙소재에 대한 색채감성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에 따라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은 위엄성을 제외하고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블랙패션소재가 더 심플/클래식하고 우아하며 현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블랙컬러의상의 이미지를 더 여성적이고 위엄이 있으

표 5. 블랙패션소재별 색채감성의 차이(Kruskal-Wallis 검정)

소재	요인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평균순위	평균순위	평균순위	평균순위
무광택 소재	멜턴	424.2 b	287.7 de	304.6 def	508.7 a
	저지	466.6 b	414.7 bcd	404.5 abcde	461.2 a
	조젯	389.5 bcd	393.9 bcd	388.3 bcdef	310.1 b
투명 소재	레이스	171.2 d	386.1 bcde	321.7 cdef	210.1 c
	오간자	241.7 cd	286.1 de	280.0 ef	166.0 c
	시폰	252.9 cd	290.4 de	309.3 cdef	176.3 c
광택 소재	벨벳	559.6 a	525.6 ab	500.0 abc	515.2 a
	새틴	416.6 b	471.4 abcd	472.9 abcd	477.0 a
	인조가죽	320.1 cd	277.3 de	316.4 def	498.0 a
χ^2 값		219.6***	115.6***	88.8***	336.1***

*** $p < .001$.abcdef: Dunnett T3 다중범위검정결과로 같은 문자는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6. 성별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색채감성 차이

구분	남학생 (M/SD)	여학생(M/SD)	전체(M/SD)	t-값
심플/클래식	4.300(1.265)	4.071(1.377)	4.187(1.325)	2.316*
우아함	4.300(1.388)	4.066(1.435)	4.185(1.415)	2.240*
현대적	4.321(1.343)	4.120(1.320)	4.222(1.334)	2.034*
위엄성	4.233(1.565)	4.023(1.732)	4.129(1.651)	1.719

* $p < .05$.

며 모던하다고 지각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이정미 등, 2006)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자극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의복과 직물상태에서 감성을 비교한 배현주와 김은애(2003)의 연구에서 직물보다는 의복으로 제시되었을 때 평가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물보다는 의복으로 제작되었을 때 감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재의 컬러가 동일한 블랙이라고 해도 소재의 종류와 성에 따른 색채감성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패션상품기획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 소재의 특성과 색채감성

4.2.1. 구조적 특성과 색채감성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색채감성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요인 중에서 심플/클래식 감성요인은 구조적 특성인 밀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두께, 무게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밀도가 낮고 두꺼우며 무거운 소재일수록 심플/클래식한 색채감성을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아함과 현대적인 색채감성은 두께와 부적 상관을 보여, 소재가 얇을수록 우아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엄성의 경우는 두께, 무게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경위사의 밀도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두껍고 무거운 소재일수록 위엄있는 색채감성을 많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2. 색채특성과 색채감성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물리적 색채특성과 색채감성요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심플/클래식한 색채감성과 위엄있는 색채감성은 모든 물리적 색채특성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아함과 현대적 감성은

표 7.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색채감성과의 관계

구분	색채감성요인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L*	-0.483***	-0.239***	-0.256***	-0.610***
a*	0.141***	0.150***	0.148***	0.131***
b*	-0.206***	-0.027	-0.025	-0.388***
C*	0.084*	-0.020	0.010	0.124**
h	0.111**	0.038	-0.008	0.139***

* p<.05, ** p<.01, *** p<.001.

표 8.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특성과 색채감성간의 관계

구분	색채감성요인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경사밀도	-0.149***	-0.012	-0.033	-0.306***
위사밀도	-0.085*	0.064	0.039	-0.134**
두께	0.082*	-0.144***	-0.103**	0.381***
무게	0.235***	-0.054	-0.001	0.527***

* p<.05, ** p<.01, *** p<.001.

L*, a*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명도가 낮고 적색기가 많으며 파란기가 많고 채도가 낮으며 색상 값이 클수록 심플/클래식한 색채감성과 위엄있는 색채감성이 느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명도가 낮고 적색기가 많을수록 우아한 색채감성과 현대적인 색채감성이 크게 느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은 모든 물리적인 색채감성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론적으로 모든 빛을 흡수하는 블랙컬러소재에서 명도가 색채감성요인에 크게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주 등(2009)의 연구에서 천연 염색한 황색과 적색직물의 색채감성과 명도 L*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채도 C*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Gao와 Xin(2006)의 연구에서 색채감성과 관련된 물리적인 색채성질은 a*와 b*와 같은 색채변인보다 명도 L*과 채도 C*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촉감이 좋다고 평가된 블랙패션소재는 벨벳, 새틴, 저지, 인조가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하고 싶다고 평가된 소재는 벨벳, 새틴, 저지소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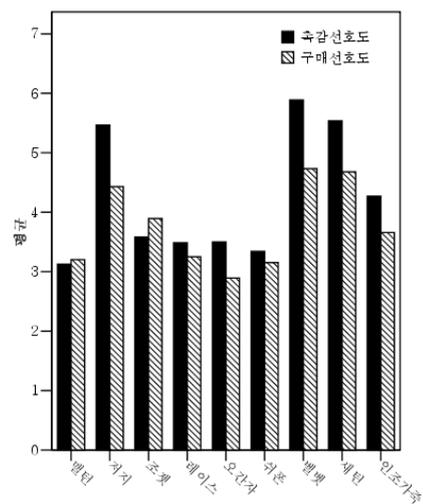


그림 1.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선호도

4.3. 블랙소재의 색채감성과 선호도

4.3.1.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선호도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주관적인 촉감선호도와 구매선호도를 소재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블랙컬러 벨벳은 이미 16세기에 스페인 모드가 유행하였을 때 가장 전성기이었고, 벨벳과 함께 새틴 소재도 남성의 귀족 룩에서부터 여성의 우아한 드레스까지 자주 등장하였다(곽혜선 등, 1998)고 한 것으로 보아 벨벳과 새틴소재는 패션소재로 꾸준히 선호되고

표 9.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adjusted R ²
촉감 선호도	(상수)	-0.201		-0.567	86.204***	0.526
	우아함	0.571	0.409	9.595***		
	위엄성	0.125	0.104	2.643**		
	위사밀도	0.007	0.245	5.549***		
	경사밀도	-0.004	-0.158	-3.678***		
	두께	-4.097	-0.561	-6.906***		
	무게	0.023	0.571	6.663***		
	현대적	0.175	0.118	2.773**		
구매 선호도	(상수)	-0.878		-4.360***	173.211***	0.561
	우아함	0.782	0.595	14.752***		
	현대적	0.203	0.146	3.579***		
	a*	0.311	0.092	3.129**		
	위엄성	0.079	0.070	2.226*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벨벳과 새틴은 앞서 고찰한 것처럼 다양한 감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패션상품기획시 아이템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크며, 복합적인 감성 표현에 적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2. 패션소재의 특성과 색채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촉감선호도는 우아함, 위엄성, 현대적 등의 색채감성과 밀도, 무게, 두께 등의 구조적 특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2.6%이었다. 즉 우아함, 위엄성, 현대적 등과 같은 색채감성이 강하게 느껴지고, 위사밀도가 크지만, 경사밀도는 작고, 두께는 얇으면서도 무겁게 느껴질수록 주관적인 촉감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구매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색채감성요인과 색채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6.1%이었다. 색채감성 중에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우아함, 위엄성, 현대적인 색채감성이었으며, 색채특성으로는 색상과 관련있는 a* 값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과 같은 색채감성이 강하게 느껴지고 적색기가 많은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구

매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촉감 및 구매 선호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색채감성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을 규명하고, 소재의 구조적 특성, 색채특성 및 색채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패션소재의 색채특성을 살펴본 결과, 육안으로는 블랙컬러 소재로 분류될 수 있지만 소재에 따라 L*, a*, b*, C*값과 같은 색채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은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의 4개의 색채감성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감성은 소재의 종류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벨벳소재는 이들 색채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소재로 평가되었다.

셋째,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은 소재의 구조적 특성 및 색채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넷째,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촉감에 대한 선호도가 좋을수록 구매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색채감성요인이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블랙컬러 패션소재는 심플/클래식, 우

아함, 현대적, 위엄성 등의 색채감성을 나타내었고, 색채감성은 선호도에 영향을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상품기획시 추구 이미지에 따라 블랙 컬러소재를 차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기초로 선정된 소재를 대상으로 색채감성과 선호도를 평가한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곽혜선, 금기숙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한국복식학회, 231-252.
- 김기래, 채금석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 이미지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한국의류학회, 1076-1087.
- 김선영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특성. *복식*, 57(4), 한국복식학회, 18-29.
- 데이비스, 마리안 L. (1990). *복식의 시각 디자인*.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서울: 경춘사.
- 문혜정, 김민자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복식*, 41, 한국복식학회, 207-223.
- 배현주, 김은애 (2003). 남성 정장용 양모 직물의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11), 한국의류학회, 1318-1329.
- 송금옥 (2000).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희 (199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진 (2006). 블랙 패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현 (2004). *색의 유희: 색채심리와 컬러마케팅*. 서울: 살림.
- 유명희 (2009). 검정색의 이미지가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윤, 김영인 (2005). 무채색에 의해 전달되는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복식*, 55(3), 한국복식학회, 122-135.
- 이은주, 최종명 (2009). 황색과 적색계열 천연염색 직물에 대한 사십대 중년층 소비자의 색채감성요인. *감성과학*, 12(1), 한국감성과학회, 109-120.
- 이정미, 조진숙 (2006).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복식문화학회, 247-259.
- 이지운 (2003).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컬러선호도.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스타일 비즈니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재 (2006). 현대 여성 패션 룩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 (1999). 블랙의상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기연, 이경희 (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7), 한국의류학회, 1003-1013.
- 쿠퍼, 미미 & 매튜, 앨린 (2002). *컬러비즈니스*. 안진환 옮김. 서울: 오늘의 책.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3). *브랜드 위상제고를 위한 컬러마케팅 실태조사보고서*. 산업자원부.
- 헬러, 에바 (2002). *색의 유희: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이영희 옮김. 서울: 예담.
- 황상민, 권보미 (2005). 색채감성 이미지 척도(PCIS)를 통하여 살펴 본 인간의 색채감성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19(1), 한국색채학회, 13-25.
- Gao, X. & Xin, J. H. (2006). Investigation of human's emotional responses on colors.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31(5), 411-417.
- Mahar, T. J., Dhingra, R. C., & Postle, R. (1989). Measuring and interpreting low-stress fabric mechanical and surface properties: part I: precision of measurement. *Textile Research Journal*, 57, 357-369.
- Osgood, E. C.,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u, L., Luo, M. R., Woodcock, A., & Wright, A. (2004). A study of colour emotion and colour preference. part I: colour emotions for single colours.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29(3), 232-240.
- Wright B. & Rainwater, L. (1962). The meaning of col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67, 89-99.

원고접수 : 10.04.19

수정접수 : 10.06.03

게재확정 : 10.06.15